

# 김종인 “호남인 마음 얻기 위해 수권 능력 보이겠다”

## 더민주 지도부-전남도 정책 간담회·대불산단 민심청취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2일 전남을 방문해 “잃어버린 전남도민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당을 이끌면서 중전 같은 불협화음을 없애고 내년 대선에서 집권 능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무안군 남악읍 한 식당에서 4·13 총선 전남 지역 출마자와 자치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호남의) 패배가 누구의 책임인지 따질 것이 아니라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선거 당시 (전남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지만 다소 민심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무너졌다”고 총선 패배의 소감을 밝혔다. 더민주는 이번 4·13 총선에서 호남 28곳 가운데 전북 2곳, 전남 1곳 등 단 3곳을 제외하고는 국민의 당에 참패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호남이)회초리를 때린줄 알았더니 풍동이였다”며 “지역 현안에 더 매진하고 착근해서 전남에서 더민주가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회호 더민주 전남도당위원장은 “거듭 선거에 패배하면서도 반성도 없고 이기기 위한 준비도 하지 않는 모습으로 지역민에 인식돼 왔다”며 “수도권 승리에 취해 호남 패배에 따른 반성을 잃고 있는 것 아닌가 걱정이다”고 최근 당 내부 흐름에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4·13 총선은 조선과 해운 등 반세기 이상 대한민국을 먹여살린 주력 산업들의 연쇄 사양화, 갈수록 굳어지고 넓어지는 금수저와 흙수저의 격차, 한국의 국가안보 등 급박한 대형 현안들을 완벽하게 외면해 엄청난 문제를 남겼다”고 지적하며 “이런 절박한 국가 과제들을 20대 국회로 미루지 말고 미래를

### 이종걸 “지역현안 더 매진”

### 대불산단 입주기업 대표들

### 특별고용·금융지원 등 요청

대비하는 청문회를 통해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더민주 지도부에 주력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안정화, 호남고속철도 2단계 무안공항 경유 노선 조기 확정,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경제자유구역 편입, 광주 연구개발특구 확대 지정, 농어촌 관련 법령 제정, 영산강 수질개선·생태기능 복원, 국립 보건의료대학 설립, 서울~제주간 해저고속철도 건설 등의 현안사업 해결을 건의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영암 대불산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에서 대불산단 기업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장 간담회에서 기업대표 등은 대불산단의 업종 전환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중소기업의 대출조건 완화,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 등을 건의했다.

문재인 비상대책위 대표이사는 “대불산단은 조선기자재 업종으로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면서 “정부의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원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표는 이어 “외국인 근로자가 최근 들어서는 전체 근로자 중 40~5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사전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숙식과 통역 등을 감안할 때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은 생산성이 떨어지고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왼쪽)가 2일 영암군 삼호읍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서 열린 ‘더민주와 함께 하는 대불산단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최홍식 신우산업 대표이사는 “대출금 상환 연장이 도래할 경우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조선업종이 어렵다는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지원마저 끊긴다면 회생은 사실상 힘들다”고 호소했다.

김종인 대표는 이에 대해 “전남도에서 추진하면서 해결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당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

## 더민주 전당대회 ‘8末9初’ 절충안 부상

### 조기-연기 팽팽...광주 시·구의원들 조속 개최 촉구

### 오늘 당선인 연석회의 최종 결론...비대위 체제 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3일 국회의원 당선인-당무위원 연석회의에서 결정한다.

당내에서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까지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체제를 유지하자는 ‘전대 연기론’과 6월 말~7월 초에 실시하자는 ‘조기 전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절충안인 ‘8말 9초(8末9初)’ 전대 개최론이 조금씩 확산되는 흐름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를 총선이 끝났다고 해서 내치거나 연말까지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자칫 전대 개최 논란이 주류와 비주류, 친문(친문재인)과 비문(친영의대립구도로 비화될 수도 있다는 것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여기에 대의원 및 지역위원회 정비는 물론 전대 준비 절차 등을 감안하면 6~7월의 조기 전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연석회의를 하루 앞두고 당내 분위기는 어수선한 모습이다. 당장, 조기

전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한 비대위 체제로는 한계가 있고, 갈등을 우려해 전대를 연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3일 연석회의의 결과는 지난 1월 15일 구원투수로 투입된 김 대표의 거취 문제를 결정지을 전망이다. 전대 연기로 결론나면 김 대표는 수권 정당 구상을 펼칠 시간적 여유를 얻지만, 조기전대로 모아진다면 전대 관리 정도로 역할이 제한된다.

김 대표 측에서는 당권에 대한 욕심보다는 당을 수권정당으로 만들어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는 것이 목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대표 측 관계자는 “대 표직을 더 하겠다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며 “당의 체질 개선을 통해 집권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주변에서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송영길 당선인이 전대 출마의사를 밝혔고, 김진표 당선인, 추미애 박영선 이인영 정청래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더민주 광주 시·구 의원들은 이날 전당대회를 조속히 열어 새 지도부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최근 연석회의에서 더민주 호남 참패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의원들은 “호남패배의 원인은 무책임, 헌신의 결여, 전략부재였다”며 지도부의 책임을 묻고 “조속한 전당대회를 요구하는 것은 호남 패배에 대한 지도부의 책임있는 모습만이 당의 핵심기반인 호남민심을 회복하는 첫걸음이라 믿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4·13 총선과정에서 지도부는 이른바 셸프공천을 밀어붙여 호남 민심을 더 악화시켰다”며 “호남에 대한 특단의 선거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중앙당 중심의 전략공천으로 등록 직전에야 후보를 결정하는 등 우왕좌왕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도 “김홍걸(국민통합) 위원장과 하의도를 방문하는 형식으로 호남 민심을 돌릴 수 없다”며 “지중하고 민심의 바다로 들어가 정치적 진로를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더민주 원내대표 경선, 친노·친문 표심 잡기 경쟁

### 단일화 논의 불발...후보 6명 완주 정면승부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가 2일로 이를 앞두고 다가왔지만 후보들간 단일화 논의가 불발되면서 6명 후보 간 치열한 세 확보전이 벌어지고 있다.

일단, 범주류로 분류되는 이상호·유원식 의원은 그동안 물밑에서 연대 논의를 이어왔지만 별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상호 의원은 이날 P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마땅한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더 고민해 봐야겠지만 물리적으로 (단일화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비주류 후보는 이상민·강정일·노웅래·

민병두 의원 4명으로, 주류보다 표 분산 가능성이 큰 편이다. 이 때문에 후보들도 단일화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역시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칙과 기준이 있고 필요성이 있다면 마땅히 해야겠지만 단순히 표를 더 보태려고 단일화하고 이합집산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고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후보 모두 완주 의지를 다지고 있어 정면승부가 불가피한 가운데 각 후보들은 당내 최대 세력이면서도 후보를 내지 않은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 의원들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만,

계과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조직적인 표몰이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후보들은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여러 방법으로 의원들을 접촉하고 있지만, 선거 운동 기간이 짧아 애를 먹고 있다. 지난해 경선에서는 후보들이 의원들을 만나려고 집앞에 차를 세우고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지만, 이번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탓에 대면 만남보다는 전화와 편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의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체 당선인 123명 가운데 57명을 차지하는 초선의 경우 얼굴도 모르는 당선인이 많아 친분보다는 경력과 공약을 중심으로 공략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보호와 사랑으로 행복을 찾아주세요**

행복한 어린이가 나라의 미래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